

광주 시내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애물단지'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단말기 광주시역 정류장 3곳중 1곳에만 설치돼 있고 상당수는 통신장애 오류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특히 버스도착안내 애플리케이션도 버스 도착 알림이 멋대로 표시되고, 버스가 현재 운행중인 지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오류투성이어서 시급한 점검이 요구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2,315개소의 정류장 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설치된 정류장은 625개소(2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4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대당 1,3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

단말기 설치율 27% 불과...특하면 고장 시민들 무더위 속 기다리기 일쑤 '불편'

로 알려졌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무더위속에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거나 버스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말기와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학교 개학기인 8월 중순부터 사용량이 폭증하면 출·퇴근 시간엔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버스가 도착했다고 나오는 등 잦은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시내버스 도착 정

보를 알려주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 모든 노선의 시내버스 도착 예정시간이 '8분'으로 표시되는 등 시스템이 마비돼 시민들이 여러 시간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남구 월산동에 사는 김 모씨(27·여)는 "버스가 8분후에 도착한다는 단말기 화면을 보고 계속 서성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아 당황했다"며 "버스가 실제로 언제 오는지 궁금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니 버스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단말기와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



최근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가 막통이 돼 수시간 동안 버스도착이 9분 남았다고 알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북구 동천동에 사는 이 모씨(56)는 "출·퇴근 시간이면 단말기가 꺼져있거나 어플리케이션도 '정보 없음'이라고 뜰 때가 많아 무작정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만간 학교 교들이 개학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면 또다시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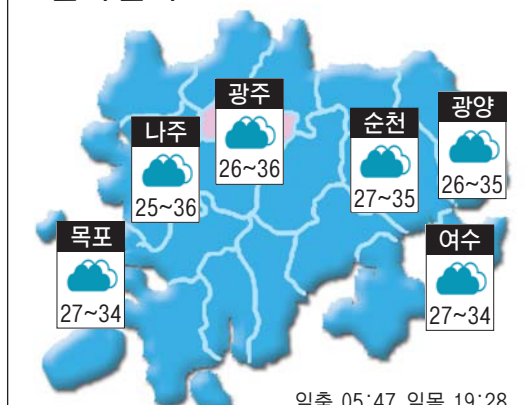
)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광주시는 '통신장애'의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할게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잘 안되는 것처럼 버스에서 송수신되는 전파가 막힐 때 순간 버스도착시간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그 부분은 현재 기술적인 한계라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모니터링과 수리를 위해 3명의 전문직원이 인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4~35	흑산도	26~32
담양	25~35	구례	25~35
화순	25~35	곡성	24~35
영광	26~35	완도	26~34
함평	26~35	강진	24~34
무안	26~34	장흥	24~35
영암	25~34	해남	25~34
진도	26~34	고흥	25~34
신안	27~34	보성	24~34

목포	만조 11:58	여수	만조 07:08 17:54
	간조 05:38 17:39		간조 01:08 13:12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데이트 폭력 매년 증가세

재범률 60%...숨방망이 처벌이 원인

광주지역에서 데이트폭력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숨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범률이 무려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할만한 법적 장치도 마땅치 않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1,038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은 2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대부분 벌금형 등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비례해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2016년 256건에서 2017년 5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이 가운데 폭행 상해는 192건에서 399건으로, 체포·감금·협박은 29건에서 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80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 같은 기간 148건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광주데이트폭력' 피해 사례가 SNS에 게재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팔과 얼굴, 허벅지 부위를 폭행당해 입원한 뒤에도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달 2일에는 배 모씨(25)가 여자친구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자중 62.3%가 상습범인 것으로 분석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보호시설과 연계와 신변경호,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 맞춤형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여경이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주 수습기자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여름방학을 맞아 8일 오후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린 '2018 여름방학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이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물맛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워터소울리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폭염특보 한달내내 이어져

오늘 낮 최고 36도까지 ↑

입추가 지났지만 광주·전남에는 28일째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풍암 37.7도, 담양 37.2도, 나주 36.7도, 곡성·함평

까지 33도(사망 5명) 발생했고, 가축피해도 누적돼 전남 406 농가에서 70만 2,000여 마리의 닭·오리·돼지 등이 폐사해 27억 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9일도 광주·전남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사이에 분포하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기온도 34도에서 36도까지 오르겠다. /김종찬 기자

여관서 20대 러시아인 숨진 채 발견

여관에 묵던 러시아인이 숨진 지 수일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광천동 한 여관 객실에 러시아인 A씨(21)가 숨져있다는 신고가 전날 오후 8시 15분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A씨 모친은 인천에 사는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내용을 통보받은 광주 서부 경찰이 현장을 찾아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부터 이 여관에 묵었으며 일주일 치 숙박비를 한꺼번에 계산한 3일 오후 4시 40분께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경찰은 여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해당 객실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A씨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직권남용' 여수해경 간부 직위해제

해양경찰 간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직권남용과 관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직위 해제했다.

A 경정은 전임 근무지 재직 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6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A 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김동균 기자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www.e-dk.co.kr

직지만 강력하게 스테레오 공기청정기 DK mini air

제습기 이젠 사계절 필수품입니다.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상담) 1544-1154